

사설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오는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흔 일곱번째로 맞는 조국해방의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민족재생과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민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고마움으로 가슴을 적시고있으며 하루빨리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지난 20세기 초 국력이 약한탓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다.

으로써 대대로 하나이던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았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리로 하여 우리 겨레가 겪어온 불행과 고통은 헤아릴수 없다. 조국강토를 갈라놓은 분별은 참혹한 전쟁을 불러왔으며 70여년간이나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민족내부에 분심과 대결을 격화시켜왔다.



### 겨레를 통일어로 부르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평양의 통일거리 남쪽입구에는 독특한 건축형상으로 온 겨레를 통일의 길로 부르는 기념탑이 있다. 오늘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다.

로 형성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고려민주권방공화국창립방안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편, 통일민세의 부주제군상들과 탑신의 내부에 형성된 기념탑전시장은 온 겨레의 통일열망과 조국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세워 그밀으며 지나며 남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보고 나가는 사람도 다 볼수 있게 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조국해방56돐을 맞으며 훌륭히 일떠서게 되엇다.

### 숭고한 사랑과 믿음속에 빛나는 삼

사람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면 추억속에 신다고들 한다. 더우기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고 온 고향산천을 그리워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문선명선생의 고향방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특별비행기도 띄워주시고 일군들이 비행장에 나가 동포애의 정으로 따듯이 맞이하도록 하시었다.

삼고한 민족애와 뜨거운 믿음에 진심으로 감복한 문선명선생이였다. 한기에 문선명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자리에서 자기 살던 정주고향집과 가족 친척들이 모두 건재할것 보니 그동안 공화국을 비난한것이 얼마나 잘못된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앞으로는 반공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진정을 담아 말씀올렸다.

을 직접 보내어 조분하도록 하는 깨끗한 의리심을 보여주었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속에 통일애국의 길을 걸은 그에게 죽어서도 빛나는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었다.

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신께서는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가기가 바란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내주시민 환환(2012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세계평화연합 전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10년에 즈음하여 13일 유가족들에게 추모전문을 보내었다. 추모전문은 다음과 같다.

###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연합 전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10년에 즈음하여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문선명선생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주제 111(2022)년 8월 13일